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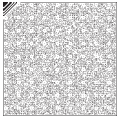
국회보

SINCE 1949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국회

2020 January vol.638

01



국회보

[표지이야기]

거친 파도 같은 일상을 벗어나 희망을
꿈꾸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들의 소망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
희망의 내일로 이어지길, 국회가 기원하겠습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윤미 작가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입법 소식지
Vol. 638, January 2020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0년 1월 2일

발행인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편집인 이춘규 홍보기획관

국회홍보출판위원회

한공식 위원장(입법차장)

임익상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위원(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위원(기획조정실장)

이용준 위원(법제실장)

이강혁 간사(홍보담당관)

편집실무위원회

윤상은(보좌관), 제방훈(보좌관), 최정배(서기관)

편집실무진

글 김현애(취재보도 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서기정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지금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과 스웨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시켜나가기를”
한-세르비아공화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 체결
국회, 2020년도 예산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소통관 준공식 개최
문희상 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대표발의

특집 국회의장단, 국회사무총장에게 듣는 새해 포부와 다짐

- 12 “국민통합으로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 만들어갑시다”_ 문희상 국회의장
- 14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국회로_ 이주영 국회부의장
- 16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 치유는 정치와 국회의 몫_ 주승용 국회부의장
- 18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것_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 20 위원장 초대석_ 전해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위원회 될 것”
- 22 길에서 길을 찾다_ 윤후덕 의원
명품 자족도시, 한반도의 평화수도 준비하는 파주
- 26 칭찬합시다_ 금태섭 의원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는 사회를 꿈꾸며



- | | |
|--|---|
| <p>28 나의 인생 나의 정치_ 김재경 의원
정당의 민주화, 왕도(王道) 정치 이룰 것</p> <p>30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노인 빈곤대책, 미래교육의 질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p> <p>38 법률 시대를 읽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_ 전상수</p> <p>40 주재관리포트
캘리포니아주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시행_ 남궁인철</p> <p>42 법 시행 그후
'아동복지법'</p> <p>44 만화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p> <p>46 국회 뉴스</p> <p>53 국회스케치</p> <p>54 국회 사람들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_ 제방훈</p> | <p>56 경제이야기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_ 이진우</p> <p>58 청년에게 듣는다
청년복지의 현주소와 과제_ 정초원</p> <p>60 과학을 읽다
그래핀이 다시 불붙인 초전도의 꿈_ 고호관</p> <p>62 오천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절제와 관능 사이, 조선시대 미인도_ 이광표</p> <p>66 역사 속 길을 찾아
신라 장군 이사부의 역사부터 2100년 열릴 타임캡슐의
희망까지_ 장태동</p> <p>70 생활 속 우리말글
횡단보도 풍경과 말의 운명_ 김형주</p> <p>71 정치 관련 주요 일지</p> <p>72 편집 후기
2020년식 정치_ 이춘규</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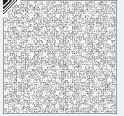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과 스웨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시켜나가기를”



문희상 국회의장과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가 12월 19일 의장접견실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9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연설에 앞선 환영사에서 “한국과 스웨덴 양국은 높은 교육열, 열린 민주사회, 지속적인 혁신 추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발전해왔다. 환경과 과학기술, 경제와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켜왔다”면서 “앞으로도 4차산업혁명 대응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스웨덴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반자다. 협치를 통한 안정적인 정치와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최상위의 국민행복도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다.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외교를 펼치며, 전쟁의 상처를 평화로 승화시킨 국가”라면서 “전 세계는 스웨덴을 ‘미래에 먼저 도달한 나라’라고 부른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웨덴이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로서 함께 가는 데 대해 매우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어 “지난 60년간 한국과 스웨덴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성장했듯이, 앞으로도 양국의 밝은 미래, 인류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성장 여정은 모두에게 큰 영감 줘”

뢰벤 스웨덴 총리는 연설을 통해 “전쟁의 폐허와 빈곤에서 벗어나 선두적인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세계 최대 경제강국 중 하나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뢰벤 총리는 또 “우리 양국의 끈끈한 유대를 축하하고 이에 대해 긍지를 가질 이유가 너무나 많다. 우리의 관계는 매년, 매일 더 견고하고 더 깊어지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

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국과 스웨덴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했다.

연설 자리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이종걸 한-EU의회외교포럼회장(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10여 개국 주한대사 등이 참석했다.

연설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장접견실에서 뢰벤 총리를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지속적인 스웨덴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스웨덴은 북한과 수교한 나라인 만큼 스웨덴의 소통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이종걸 한-EU의회외교포럼회장, 이정규 주스웨덴대한민국대사,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한공식 국회입법차장,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고, 스웨덴 측에서는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 다니엘 볼비엔 총리실 국장, 세실리아 루드스트룀-루인 외교부 아태국장, 켄트 해슈테트 외교부 한반도 담당특사 등이 함께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 ‘한-세르비아공화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 체결



문희상 국회의장과 마야 고이코비치 세르비아 국회의장이 12월 18일 ‘한-세르비아공화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8일 마야 고이코비치 세르비아 국회의장과 만나 의회 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한-세르비아공화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를 체결했다. 협력의정서에는 국

제회의를 통한 공동 관심사 협의, 입법현황 연구와 의회외교 및 의회활동 경험교류 등을 통한 소통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개최됨으로써 양국민 간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고이코비치 의장의 첫 방한인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의회 간 협력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어 “세르비아는 서발칸 지역의 주요국이자 EU 가입 후보국으로서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금번 방한 중 우리 기업인과의 면담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유익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 문화교류,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도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외교적 해결만이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세르비아의 지속적인 지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이코비치 의장은 “카자흐스탄에서 처음 만



세르비아 방문단과 문희상 국회의장,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공식 국회입법차장, 이기우 의장비서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 세르비아에서 개최하는 제14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을 요청 드렸는데, 이를 즉시 응해주시고 세르비아를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세르비아가 EU 회원국에 가입하게 된다면 한국에 우호적인 EU 국가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르비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국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제에서 오찬도 함께 하며 의회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국회, 2020년도 예산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는 12월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제371회국회(정기회) 마지막 날인 2019년 12월 10일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2020년도 예산은 512조2천50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513조4천580억 원)보다 1조2천75억 원 순감된 규모로, 정부안

대비 9조749억 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대응소요를 중심으로 7조8천674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2019년 예산(469조6천억 원)보다는 9.1%(42조7천억 원)가 늘었다.

한편 12월 27일에는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규모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구성된다.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한국사회 이해와 소통 중요성 상기해야”

국회소통관 준공식 개최



김승기 국회사무차장, 한공식 국회입법차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이종후 국회예산처장 등이 12월 23일 국회소통관 준공식에서 축하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23일 국회 소통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국회소통관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을 인용하며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했다. 한국사회 전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또 “국회 소통관은 국회가 ‘소통의 중심’, ‘나눔의 현장’이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계된 건물”이라며 “의정, 행정, 언론, 시민이 함께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하는 열린 국회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작은 건물 안에서는 국회와 행정부, 언론, 시민이 함께 지내게 된다. 업무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봄이 오면 벚꽃, 가을이 오면 은행나무, 계절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는 국회

의 소통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것”이라면서 “국회소통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이자 소통의 문화를 발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소통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만4천732㎡ 규모로, 1층 후생시설, 2층 프레스센터, 3층 스마트워크센터, 4층 일반 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

문희상 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대표발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 법안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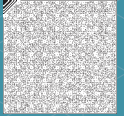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을 정책대상과 적용법리에 따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으로 분리해 대표발의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2018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

로 특수 재단(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기억·화해·미래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정안이다.

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말까지 활동했던 조사지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 등의 지급과 관련해 종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마무리하도록 하려는 목적의 개정안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신의 구상을 법안에 담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방안이면서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런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 장시간에 걸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



Special Issue

특집

국회의장단, 국회사무총장에게 듣는 새해 포부와 다짐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국회의장과 양(兩) 부의장,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새해 포부와 다짐, 그리고 국회 전망 등을 들어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국민통합으로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 만들어갑시다”

문화상 국회의장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국회로

이주영 국회부의장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 치유는 정치와 국회의 몫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것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국민통합으로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 만들어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국민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국회 역시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억하며 신뢰받는 국회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정치는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은 전환기마다 세계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이뤄냈습니다. 2017년 광장의 촛불은 지쳐가던 한 국사회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국민의 저력과 에너지를 한데 모아 승화시키는 일은 정치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제자리걸음만 해왔습니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멈춰있게 해서 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민생경제와 남북관계,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해 첫 날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제21대국회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정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열망했던 새로운 대한민국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자년 쥐띠의 해에는 희망과 풍요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국민통합의 힘을 모아,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20년 1월 1일
국회의장 문희상

문희상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국회로



이주영 국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거는 기대와 희망, 그리고 지난해의 성과를 이어가고자 하는 포부는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올 한해 경제 상황도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난해는 급격한 경제위축과 사회계층 간 대립, 청년실업의 급증 등으로 국민 화합보다는 사회적 갈등이 만연한 힘든 한해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들을 더욱 답답하고 안타깝게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급격히 증가하는 세 부담, 노후 생활의 안전판이 되지 못하고 불안만 가중시키는 국민연금, 하루하루 소멸해가는 자영업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는 한국사회를 더욱 반목하게 만들고 있으며, 또 민생경제와 관련해 큰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조금하게 추진된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혁신하며, 국가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했으나 여러모로 부족함을 자성하게 됩니다.

사회적 통합과 신뢰 구축 필요

오늘의 경제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정부정책 방향의 기초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큰 결단이 필요하며, 사회적 통합과 신뢰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모으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성장 동력과 경쟁력을 키우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며, 더불어 우리 국민과 기업이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이 우리 국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문제점, 즉 침체된 경제, 계층 간 갈등, 지역 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높은 청년실업률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과제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현장감 있는 정책을 통해 생산적인 정책경쟁에 주력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국회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며,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역사사지의 입장으로 서로 한 발짝 물러서 적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가질 때 국민도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감에서 벗어나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대의민주주의의 보루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따뜻한 박수를 쳐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로 나아가

올해는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한반

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가 요동치고, 경제적, 사회적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정치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쟁과 협력을 통한 상생의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과 함께하며, 국민의 눈높이로 상황을 인식하고 국민 속에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념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계층적으로 어느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 국회, 국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0년은 많은 것이 달라졌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움과 실의에 빠진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살만한 곳이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국민들이 진일보하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꿈과 희망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높은 뜻과 숭고한 이상입니다. 국회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데 노력해야 하며,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자세로 의회가 중심이 되어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힘과 뜻을 모아나간다면 안정된 정치 문화 속에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회 가족 여러분! 2020년 경자년 한해 건강하시고 소망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크게 성취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 치유는 정치와 국회의 몫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 가족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늘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 국회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 여망이 담긴 개헌, 정치·선거제도 개혁, 민생 관련 입법으로 부응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중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외면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혐오가 커지면 국민 갈등과 분열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 무엇보다 정치가 바로 서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치가 때론 우여곡절을 겪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은 국회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 국민대표 기관으로서, 입법 기관으로서, 국정 통제 기관으로서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해 왔는지 곰곰 되돌아보고, 2020년에는 다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구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승용 국회의장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일하는 국회로 응답해야

올해에는 총선을 치른 후 제21대국회가 출범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은 청와대가 아니라 민심의 전당인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1년 365일 불을 켜고 열심히 일해 ‘중단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 없는 불쌍사나운 정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제 정당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냐 진보냐’라는 이념논쟁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이를 타개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실업률은 최악이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중대한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야를 구분하지 않는 ‘소통과 협치’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제20대국회에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은 제21대국회에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소통과 협치 위한 정치개혁은 시대적 과제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구성 자체를 바꿔야 하고, 여기에는 제도의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와 틀을 바꿔야 합니다. 민심을 그대로 정치에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소통과 협치가 제도적으로 안착되도록 국회가 앞장서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당제 역시 국민의 선택이자 시대정신입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공존하는 다원화 시대입니다. 적대적 양당제는 획일적인 선택을 강요해 다양성을 저해하고 정치 불신을 가져올 뿐입니다.

1인당 국민총생산(GDP) 3만 달러가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중 소득양극화가 가장 심한 미국을 제외하고 26개국이 다당제 국가이며,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상위 10개 국가 중 8곳이 다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시대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는 해법은 다당제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의 소중한 가치와 정신을 지켜내고 더욱 확산시켜야 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일 것입니다.

제3당 출신 부의장으로서 새해에도 국회에 대한 엄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의를 전당으로 거듭날 것

2020년 경자년의 시작입니다.

새해의 문턱을 넘으며 지난 한 해를 반추해 봅니다.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국회의 세금 낭비와 특권을 향한 국민들의 비판과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들어 ‘계획적 예산·공익적 집행·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국회 제도개선에 나름대로 열의를 쏟았습니다.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근절을 위한 엄격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가 이루어졌고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활동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국회 예산의 엄격한 심사와 공정한 집행으로 세금이 허투로 사용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지출은 대폭 삭감하고 연구용역비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국회보조금을 받는 소관법인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결과를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국회 전자청원제도인 ‘국민동의청원’의 시행으로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법안을 제안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더 많은 민의를 입법에 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국회 인사에 있어 입직경로와 직렬 등 형평성을 감안한 승진 및 보직 부여로 ‘균형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큰 변화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그러나 ‘국민에 신뢰받는 국회가 되었는가’ 자문했을 때 국회는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한 치의 양보와 합의 없는 여야의 정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국정마비 상태로 ‘식물국회’의 오명을 얻는 데 더해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사라졌던 ‘동물국회’마저 재현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얼굴입니다. 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아닌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하고자 선출되어 국회에 당도한 국민들의 얼굴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대신한 이들의 태업·파업, 과격한 다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상식적 태도와 판단이 먼저였다면 정치공방이 아닌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국회가 대의·입법기관으로서 품격과 위상을 스스로 짓밟고 국민들께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드려 참담한 마음입니다.

국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길에 다시 서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정하게 합의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예외로 둔갑한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나 선례가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를 교묘히 비집고 들어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도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먼저 나서 공정한 국회운영,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당당히 답하고 민의의 대표기관으로 바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국민과의 소통과 화합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0년은 제21대국회 개원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국회법인 보조금과 개원경비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 구현’을 위한 의정환경 개선, 의회외교 예산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한 단계 격상된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국회소통관’으로 대외 협력 및 언론공보 기능을 이전합니다. 국회와 정부 간 효율적 업무협력은 물론 언론의 취재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소통관 주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국회를 찾는 국민들께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호흡하는 소통의 장을 넓히겠습니다.

국회의 신뢰 문제는 많은 부분 정치인의 몫이지만 우리 사무처로서도 국회의 신뢰 회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투명한 국회운영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6개월 후 물러갑시다만 제21대국회에서 남은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국회가 품격과 권위를 잃지 않고 ‘국민에 신뢰받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 기틀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여러 분께서도 국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자부심을 가지고 국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계절이 펼쳐집니다. 운과 고됨의 차는 있겠지만 모두에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지난해 끝맺지 못한 걱정과 고민일랑 멈추고 매 해 작은 결실을 쌓아가는 자신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반드시 나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꿈을 위한 계획을 소중히 지켜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위원회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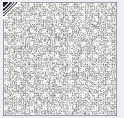


전혜숙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과 소방,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인 선거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최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와 신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일명 ‘민식이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들을 의결해 더욱 주목을 받은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을 만났다.

Q. 지난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이 가결됐습니다. 소감과 함께 법안 통과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지 소개해주세요.

A. 지난해 11월 19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부족 인력 확충 등 소방안전 대응역량이 국가의 책임 아래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는 10년 이상 논의되어왔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가 이제서야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가까스로 통과했으나, 또다시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에서도 위원 구성이 여의치 않아, 한동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의 처우와 환경을 개선해 국민 안전을 증진하는 것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29일 만에 안전조정위원회가 구성돼 논의가 재개됐고, 10월 22일 행정안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소망직 국가직화를 염원하는 소방관분들과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에 결국 성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함께 노력해온 정부와 야당에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Q. 그 밖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의 주요 성과는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여야의원들과 소통하고 독려하면서, 소위 ‘일하는 국회법’을 가장 잘 지킨 상임위원회로 평가받았습니다. ‘일하는 국회법’ 시행(2019년 7월 17일) 이후 한 달에 2차례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유일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우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과속CCTV)와 신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등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4차산업혁명을 이끌 신산업의 법적 토대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처리했습니다. 이른바 ‘데이터3법’ 중 기준이 되는 법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의결해 과방위와 정무위에 계류 중인 연계법안들의 논의도 앞당겼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지방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등 7건의 관계 법률도 처리해 연간 약 8조 5천억 원의 지방세가 확충됐습니다.

Q. 남은 제20대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과제나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제가 맡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는 김민식 군 부모의 절절한 호소와 국민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수많은 법안 더미에 파묻혀 있던 ‘민식이법’을 겨우 끄집어내 지난해 11월 21일 통과시켰습니다. ‘민식이법’은 통과됐지만,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제20대국회가 끝나기 전에 아이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법안들이 처리되길 희망합니다.

Q.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의 정치철학과 새해 다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여성의 시선에서 임금, 고용 등 사회 곳곳에서 마땅히 지향되어야 할 ‘양성평등’이 부족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여성 국회의원이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 절반이 여성인데, 정치권의 유리천장은 아직도 높지만 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여성 국회의원은 51명으로 17%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민선 1기부터 7기까지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17%)의 인원으로 대한민국 절반(50%)의 입장을 대변하려다 보니 할 일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 많은 여성이 정치권에 등장하기 위해, ‘능력 있는 여성의 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여성의원이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에서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도전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글. 김현아 사진. 김진원

목은 것들을 비워내고 깨끗하게 서 있는 겨울나무처럼, 곧은 걸음을 다짐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던 12월 어느 아침. 접경 지역이자 농업지역, 군사도시에서 출판문화예술과 생태관광 중심지로 급성장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를 찾았다. 머지않아 명품 자족도시, 한반도의 평화수도로 도약할 것이라며 파주 이야기를 풀어놓는 윤후덕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파주 출판도시 '지혜의 숲'에서



명품 자족도시, 한반도의 평화수도 준비하는 파주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학생들 등교지도하며 지역민과 소통

새벽 6시 파주 운정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나눠주며 하루를 시작한 윤후덕 의원은 8시가 넘자 운정 신도시에 위치한 가온초등학교로 발길을 돌렸다. 녹색어머니회 학부모들과 친숙하게 인사를 나눈 그는 왕복 8차선 대로변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교통지도를 시작했다.

“국회 일정이 없는 날에는 지역 내 초등학교를 찾아 이렇게 교통지도를 하는 게 큰 기쁨입니다. 귀여운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안전한 등교를 돕는 것도 보람 있고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 곳곳을 살필 수 있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9시가 넘고 아이들이 등교를 마치자 윤후덕 의원은 근처 운정호수공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운정호수공원은 운정 신도시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5만 평 규모에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푸른 잔디와 놀이 공간, 산책로, 운동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12월에는 빛광장 조성 점등식을 개최해 매일 자정까지 빛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이 밤에도 많이 나오셔서 예쁜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인기 끄는 파주 출판도시

파주 출판도시는 출판유통구조의 현대화를 꿈꾸던 출판인들이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일대에 약 48만 1천 평 규모로 조성한 우리나라 출판의 중심지다. 문발로를 중심으로 출판사와 책방, 북카페, 박물관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복합문화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출판도시 안으로 들어선 윤후덕 의원은 인쇄박물관 ‘활자의 숲’을 찾았다.

“이곳은 세계 최초의 활판인쇄국이자 가장 우수한 제책기술을 지닌 우리나라의 활판인쇄술과 제본술을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활자와 자모, 주조기, 절단기, 인쇄 장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계와 제책장비들이 실제로 가동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전통 활판인쇄술 및 오침제본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니 ‘지혜의 숲’ 팻말이 눈에 띈다. ‘지혜의 숲’은 출판도시문화재단이 만든 새로운 개념의 독서공간이다.

“20여만 권의 책이 뽁뽁하게 채워진 ‘지혜의 숲’ 서가

는 길이가 3.1km에 달합니다. 도서관 분류법을 따르지 않는 개방형 서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꺼내 볼 수 있는 곳이지요. 1관은 학자, 지식인, 전문가들이 기증한 도서가 소장된 공간이고, 2·3관은 출판사 기증도서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3관은 365일 24시간 무료로 개방되어 독서애호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안보관광지 오두산 통일전망대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해발 118m의 오두산 정상에 있다. 서부전선의 최북단으로, 남과 북이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2km의 짧은 거리를 반세기가 넘도록 왕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단의 현장이기도 하다.

“1992년 개관한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북한 땅이 한 눈에 보여 실향민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분단의 현장을 직접 보고 북한주민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통일교육의 장이자 통일안보 관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윤후덕 의원



윤정호수공원



15:00



오두산 통일전망대

“교통문제의 해결이 가장 먼저”

제19대 총선에서 보수성향이 강한 경기도 파주에 53년 만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는 데 성공한 윤후덕 의원은 이어 제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문화·체육 시설 확충 등 파주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부지런히 뛰어온 그는 “파주가 명품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통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착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파주연장사업은 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에 포함됐고 2023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GTX가 완공되면 파주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시민의 삶의 질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도 그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초선의원이었던 저는 새벽마다 세종시로 길을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과장부터 국장, 차관, 장관까지 찾아다니며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의 필요성을 설득한 것이지요. 그 결과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일산선 대화~운정연장사업 추진 방안 연구’ 용역(재기획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실행계획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 일 많은 파주의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 윤후덕 의원. 파주의 심부름꾼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8년을 달려온 그가 꿈꾸는 명품 자족도시 파주의 미래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려본다. 🍵

경기 파주/글. 김현아 사진. 김지범·유윤기



오신환 의원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는 사회를 꿈꾸며

지난달 국회보 ‘청찬합시다’의 주인공이었던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관악구을)은 다음 주자로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을 추천했다. 금태섭 의원에게 오신환 의원은 “합리성을 가지고 중재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만드시려는 분”이라며 “단순히 여당의 논리가 아닌 자신의 소신과 가치를 지켜가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인 의원”이라고 칭찬했다. 이에 금태섭 의원은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오신환 의원은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셔서 법조인이 아님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여러 쟁점에 전문가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칭찬으로 화답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제20대국회 입성 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 사법개혁에 힘쓰는 한편, 동료의원 전원에게 ‘82년생 김지영’ 책을 선물하는 등 젠더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금 의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목표라고 밝



금태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혔다. 이어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이 목소리를 낼 때 같이 힘을 주고, 옆에서 있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소수자 보호’다. 정치에 있어서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태섭 의원은 법률가로서는 개인의 노력에 한계가 있어 정치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검찰에 있을 때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썼다가 쫓겨나



다시피 사표를 내고 나오게 되었죠.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법률가의 길은 어떤 사건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 혼자서 노력하는 과정이라면, 정치는 여러 명에서 힘을 합쳐서 조금 늦더라도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굉장히 보람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조정과 법원 판결문 공개 위해 힘쓸 것

금태섭 의원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꾸준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과잉, 사법과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모든 이슈에 대해 검찰의 기소여부로 판단 내리고, 형사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천경자 화백이 그랬다고 알려진 ‘미인도’의 진위 여부도 검찰이 따져준다. 조그마한 문제까지 검찰과 법원이 결정해준다보니 그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금태섭 의원은 지난 2017년 검찰의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원의 판결문 공개를 담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기본입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주장했는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재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아울러 공개된 판결문 분석을 통해 사법개혁이 진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금 의원은 “아직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이 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만약 재선이 된다면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이태규 의원을 추천합니다

금태섭 의원은 다음 칭찬 주자로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을 추천했다. 금 의원은 “이태규 의원과는 한 시사방송 고정 출연진으로 함께 출연해 매주 만나고 있다”면서 “통찰력 있고 합리적인 의원”이라고 소개했다.

“이태규 의원은 어떤 사안에 대해 다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의원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평소 많이 배우게 됩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강조한 금태섭 의원은 이태규 의원에게 대해 ‘솔직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칭찬했다.

“우리가 잘한 것도 주장을 해야 하지만 실수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대화에 진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의원은 대화가 잘 통하는 의원입니다.”

글. 서기정 사진. 유윤기

정당의 민주화, 왕도(王道) 정치 이룰 것

김재경 의원 (자유한국당, 경남 진주시을)



검사 출신의 김재경 의원은 제17~20대 국회의원으로 윤리 특위·예결특위 위원장,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부드러운 인상에 온화한 미소가 돋보이는 김재경 의원의 인생과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재경 의원은 유년시절에 대해 아들이 귀한 집의 장

남으로 태어나 온 집안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랐다고 회상했다.

“고모는 많았지만 아버지가 외아들이어서 할머니가 장남인 저를 유독 예뻐해주셨습니다. 유복한 집안 형편에 학업 성적도 좋다 보니 어린 시절 저는 자기주장과 고집이 센 편이었습니다.”

김재경 의원은 그러다 9세 무렵 관절염을 앓기 시작



하다 중학생 때 한 해를 쉴 정도로 큰 수술을 받았다. 김 의원은 그때의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했다. 이후 김 의원은 당시 전국에서 내로라하던 진주고에 진학했고 학창시절 역사에 관심이 생겨 사학과에 진학해 대학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

“제가 예비고사(옛 대입시험)에서 340점 만점에 317점을 맞았습니다. 서울대 사학과에 원서를 쓰려 했는데 담임선생님은 제 점수가 아깝다고 계속 다른 과를 쓰라고 권유하셨어요. 그때 제 성격이 보통 고집이 아니었던 지라 선생님과 크게 다툰 뒤 서로 원서를 찢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침 진주에 있는 경상대에 법대가 생겨 김재경 의원은 전체 수석으로 경상대에 입학해 법대 1회 졸업생이 됐다.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10여 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제17대국회 때 국회에 입성했다.

“검사 시절부터 정계 입문에 대한 주변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제17대국회 때 진주의 지역구가 2개로 나뉘어 출마 여건이 좋았습니다. 대학 동문들의 열망도 있었고 지방대 출신으로 괜찮은 인물이라는 지역민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6개월 만에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김재경 의원은 제17대국회는 경상대 출신이라는 이점으로 당선됐고 제18대국회는 새로운 당내 집권세력의 덕을 보았으며 제19대, 제20대국회는 경선으로 조금 힘들게 넘어섰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이라는 쉽지 않은 결과에 대해 김재경 의원은 “저는 말보다는 행동,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좋아한다. 또 참을성도 많은 편이다. 동양사회에서는 패권주의보다 ‘왕도

정치’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정치에 쇄신과 혁신의 바람이 부는데 이는 분명 정치발전의 동력이지만 그 기준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독재·금권·지역구도에서의 민주화와 더불어 정당과 공천에서도 민주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제가 제21대국회에도 입성하게 된다면 국민과 당원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제일 먼저 발의할 것입니다.”

김재경 의원은 발의했던 법안 가운데 가장 의미 있었던 법안으로 청소년의 심야 게임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강제적 셧다운제)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꼽았다.

김재경 의원은 “심야에까지 청소년들이 게임을 해야 되겠냐 하는 생각에서 발의했다. 당시 개정 과정에서 한 학부모의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데, 국회에서 시간을 보내며 논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청소년들은 무방비상태에서 게임에 빠져 있다는 말이었다. 당시 제 아이들의 친구들이 ‘너네 아빠 싫다’고 말했다기에 아이들에게 제가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양보하고 행동하고 인내하는 정치

김재경 의원은 우리는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나라지만 진보·보수 간 갈등이 너무 심해 정권이 교체되면 그 폭이 너무 커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당의 민주화를 꼭 이루고 싶습니다. 정치에서 투쟁, 강경, 싸움이 당연시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투쟁이 정치의 전부는 아닙니다. 조율하고 화합하는 정치에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

글: 고영선 사진: 유윤기

●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 모색’ 토론회**

노인 빈곤대책, 미래교육의 질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2월 3일 국회입법조사처, 사단법인 ‘참누리 : 빈곤 없는 사회’와 공동으로 ‘현세대 노인을 위한 빈곤대책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은 “복지 예산은 크게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의 빈곤을 해결해줄 만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행정중심 노인복지대책을 노인중심 맞춤형대책으로 전환하되 민간, 대학, 자원봉사 등의 기능을 포함한 정책의 다각화 모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병수 참누리 빈곤연구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노인 빈곤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정부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모두 최저소득보장 역할에 매우 취약하고, 복지정책지출에 따른 빈곤감축효과도 낮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연구원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노후생활안정제도’를 제시했다. 서 연구원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수준 이하인 75세 이상 노인에게 기본급여로 1인당 월 80만 원을 지원하고 부부의 경우 월 136만 원을 지원한다. 별도로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만성질환이나 노인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는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노인 빈곤 문제해결을 위해 노인



● ‘인구절벽시대,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포럼

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조사관은 “한국인의 기대여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0.6세보다 높은 82.4세로 조사되며, 노인 경제활동참가율도 OECD 회원국 중 1~2위”라며 “경제활동에 오랜 기간 참여하는 것은 노인의 소득빈곤과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액의 인상이나 공공근로 일자리 증대와 같은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령자 일자리 마련과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와 공동으로 ‘인구절벽시대,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포럼은 한국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우리 교육은 높은 수준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래교육은 공감과 연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지식중심의 학력에서 ‘살아가는 능력 중심의 역량’으로의 확장과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원재정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는 오히려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기회이며, 현재 우리 교육은 ‘경쟁과 그로 인한 서열화’로 요약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 배려, 통합, 교육 기회의 평등을 기반으로 한 교육철학 정립’을 강조하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로 대표되는 교육주체의 교육권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 학생이 학교를 행복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는 수

●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업과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규모 학급을 만들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항윤 전북 서곡중 교장은 “도시 학급은 (학생이) 30~35명까지도 있는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지 않고서는 어떤 토의, 토론, 프로젝트 수업도 현장에서는 공염불”이라고 토론했다. 이경화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추진 자문위원은 “지역이나 학교 수준에서는 민주적인 논의를 모으기 쉽지 않다. 인구감소시대에는 각 학생, 학부모당 교육전문가의 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학교 구성원 간 소규모 고밀도 소통을 역설했다.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공동대표 오제세·박인숙 의원)은 12월 6일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인숙 의원은 “서울 상급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과 중소병원의 폐업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2019년 상반기 일명 ‘빅5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1조9천9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했다”면서 “환자 쏠림은 의료이용과 함께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킨다. 낮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비싼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정상적 의료이용 관행을 양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쏠림은 환자 안전문제와 직결되니 관련 데이터 공개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진료비가 늘었다는 단순 통계만으로 상급 대형병원에 책임을 넘기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순 대한병원협회 의무이사 겸 일산백병원장은 “대형병원 진료비가 약 24% 늘었는데, 같은 기간 의원급 진료비도 13%, 치과의원은 20% 늘었다. 이것도 환자 쏠림으로 봐야 하나”라면서



●
**‘인공지능(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좌담회**

“현상만으로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환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까지 왜 대형병원을 찾는지에 대한 근본원인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문제다. 정부가 환자 쏠림과 의료전달체계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 “현재 단기대책 후 중장기대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중장기대책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역할 분담 △기능에 따른 수가체계 마련 △공-사 보험 간 역할 분담 △동일 종별 간 협력 촉진 등을 꼽았다.

이상민 의원, 강병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12월 9일 ‘인공지능(AI) 산업발전을 위한 저작권 법령 개선’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AI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불명확성 또는 불합리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저작권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AI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가 생산되면 누가 창작과정에서 핵심적인 기여를 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태욱 변호사는 “AI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귀속시키고, 정할지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3법과 저작권법이 중요하다”면서 “AI 강화학습을 위해서는 막대한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명확한 법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호 변호사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보면 다양한 저작물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저작물만 선별해

●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물질과
경로 중심으로’ 토론회**

서 학습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것을 구현해내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형사책임 부담을 지면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AI인 만큼, 시대변화에 따라 저작권법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달 중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 시대 저작권법 개정 연구반’을 발족시킬 예정”이라며 “6개월간 운영한 후 2020년 6월에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은 12월 11일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물질과 경로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진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국은 동쪽이 평야, 서쪽이 고산지대다. 고기압 중심의 흐름에 따라 중국 동부, 서해, 한반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중국의 지형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기질에 주목했다. 물질과 관련해서는 “2차 미세먼지의 재료가 되는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저감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입자로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와 가스나 증기로 배출되는 2차 미세먼지로 구분되는데, 2차 미세먼지가 전체의 약 75%를 차지한다는 게 정 책임연구원의 설명이다.

김순태 아주대 교수는 ‘암모니아’의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및 영향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국내 암모니아 배출량 증감 시 질산염 농도도 비례해서 변화했다. 이는 암모니아가 질산가스 농도와 질산염 농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방법론에 따른 결과 차이를 설명하며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배출원배분법(PSAT, Particulate Source Apportionment Technology), 단순입력법



● ‘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BFM, Brute Force Method) 등이 있다. 똑같은 정보가 있어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승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도 “그간 간과된 암모니아에 대해 저감목표를 설정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인식이 낮은 만큼 대책수준도 미흡하다. 특히, 농축산의 축산 분·배뇨 등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얻기 힘들다. 계절별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18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정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의 통과는 국민의 여망이 국회로 들어오는 과정이었다. 앞으로 논의과정부터 취지에 부합한 집행까지 학교와 현장, 제도, 정치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방관 국가직화는 목표가 아닌 과정”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전 국민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받고 재난 화재대응 효율성과 효과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문호 소방청장 역시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는 소방서비스 수준과 안전도를 균등하게 하고, 국가가 중심이 돼 총력 대응하는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방관의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 비상 대응 발령권을 상황책임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재봉 전 소방청 차장은 “대응 1~3단계를 파악할 때 위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데 실기(失機)하면 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전 차장은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신고접수, 출동지령, 출동, 현장대응이 과학 접목돼 대응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음성기반의 수동신고접수를 영상,

‘정신건강,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다’ 토론회

음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접수로 바꾸고 스마트폰으로 119 신고 시 자동으로 위성항법장치(GPS) 연결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방정책 과학화·지식화·체계화,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현장대응력 고도화, 최신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강대국에 걸맞은 수준의 위험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별 운영으로는 힘들다.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2월 19일 ‘정신건강,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신건강 분야의 사회적 인식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도자 의원은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신건강을 위협받는 현대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58만 8천155명이었던 우울증 환자 수는 2018년 75만 1천930명으로 28% 증가했다”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전문가와 보다 쉽게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영 순천향대 교수 겸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은 “정신질환이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문제”라면서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울증은 재발위험성이 높아 지속적·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소년을 대표해 참석한 우가은 멘탈헬스코리아 청소년 피어 스펬셜리스트(Peer Specialist, 동료상담가)는 “정신질환은 이제 암을 뛰어넘어 가장 높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질병”이라며 “정신질환의 사회적



●
**‘다문화가정 내 가정
 폭력 근절과 학교
 적응 방안’ 토론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조기에방과 조기개입이 중요한데, 사회적 편견이 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해 청소년을 ‘관리와 문제의 대상’이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로 볼 것을 촉구하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학부모와 교사 대상의 정신건강교육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은 12월 20일 ‘다문화가정 내 가정 폭력 근절과 학교 적응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정은 한성대 교수는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부모를 따라 한국에 들어오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 중에는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이 본국의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박에스더 단국대 강사 역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자신이 성장해온 시공간과 단절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국내에서 나고 자란 다문화 가정 자녀보다 학교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는 심각하지만, 아직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교수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협력을 통해 전국 단위의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돕는 ‘다문화 예비학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글. 서기정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1995년부터 운영돼왔는데,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는 2천458건에 달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강훈식 의원안’과 ‘이명수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강훈식 의원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벌토록 하고, 이명수 의원안은 스쿨존에서 자동차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사망사고에 “3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토록 했다. 즉, 현재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서 사망 또는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정형을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두 의원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합·조정할 대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상 준수 의무(통상 시속 30km 이내 운전, 어린이 안전 유의운전) 위반을 추가했다. 또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범위를 어린이(13세 미만)로 한정하고, 형량은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의 법정형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개정안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형벌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는 속도·중량 등 그 특성상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다.¹⁾ 김민식 군 사례와 같이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어린이에게 사망·중상해 등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처벌을 가중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둘째, 2007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에서 제외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이 미약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미약하다는 인식에 근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07년 특례법 개정취지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도 가중처벌로 입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뉴저지주에서는 위험운전으로 인한 일반 교통사망사고를 2급 범죄(second degree crime)로 처벌하나 스쿨존에서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1급 범죄(first degree crime)로 가중처벌(최대 20년 징역형)하는 형법 규정을 두고 있고, 일리노이주는 스쿨존에서 위험운전에 따른 사망시 2급 중범죄(Class 2 felony)로 보아, 1인 사망 시 “3년 이상 14년 이하 징역형”, 2인 이상 사망 시 “6년 이상 28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최근 엄벌하는 경향에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사망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의 법정형을 두고 있으나, 운전자에게 양형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작량감경하여 1년 6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고, 작량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3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중처벌만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며,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등 물적 인프라와 함께 안전의식의 함양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

1) 이주원, 특별형법(2018), 205면

캘리포니아주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시행

독립계약 근로자의 직원 전환 의무화

지난해 9월 18일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AB5(Assembly Bill 5) 법안이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발효됐다. 이 법안은 2018년 4월 30일 캘리포니아 대법원(Supreme Court)이 선고한 다이너맥스 사건(Dynamex Operations West Inc. vs.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County)의 판결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 법안의 정식 명칭은 ‘앱 기반 운전자 및 서비스 종사자 보호법안(App-Based Driver & Services Act)’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일하고 있는 독립계약 신분의 직원들이 ‘ABC 테스트’라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고용주가 증명해야 하고, 이것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모든 근로자는 노동법이 적용되는 직원(employee)으로 간주된다. 세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근로자는 업무 수행 계약에 따라 실제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용 주체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하고,
- (B) 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사용자인 기업의 통상적 사업 수행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며,
- (C) 독립 자영업으로 형성된 직종-직업사업에서 그 노무제공자가 일해온 방식과 동일하게 고객(기업)을 위해 일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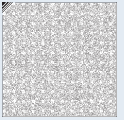
‘긱 이코노미’ 시대의 노동자 보호 법제화

이 법안은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취약해진 노동자의 법적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긱 이코노미는 1920년대 미국 재즈클럽 주변에서 일회성 공연을 위해 단발성으로 필요한 연주자를 섭외하던 ‘gig’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신조어로서, 독립적 신분을 유지하는 근로자, 분절적인 특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 그리고 이들을 중개하는 업체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¹⁾. 일용직 건설인력,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 이러한 형태의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지난 10여 년 전부터는 우



남궁인철 LA주재관

1) The Future of Work: The rise of the Gig Economy, National Association of Counties, November 2017.



버(Uber)나 리프트(Lyft), 한국의 배달의민족, 타다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앱 플랫폼과 연계되어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미국의 연방 노동 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36%인 5천700만 명이 각 노동자에 해당하고 현재의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7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국내 취업자 중 1.7~2.0%에 해당하는 47만~54만 명이 각 이코노미 종사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각 이코노미 체제하에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임금 외에 각종 사회 보험료, 세금, 교육 비용, 사무 공간 등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소비자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다.

종사자 입장에서 노동시간의 탄력성과 노동시장 진출입의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본업 외에 가외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일자리 만족도 및 정서적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자리 불안정성, 낮은 급여,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의 미적용 등의 단점이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에 전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AB5의 영향과 전망

동 법안에 따라 기존에 독립계약자 신분이었던 노동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고 의료·실업 및 장애보험, 유급

육아휴직, 초과근무수당 등을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승차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의 경우 비용 증가로 인해 연간 추가 손실이 각각 5억 달러, 2억 9천만 달러씩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각 이코노미의 선두주자 격인 기업들은 법안 시행을 막기 위해 공동 전선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우버나 리프트, 도어대쉬 등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20% 이상,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을 보장하되 기존의 독립계약자로 대우하겠다는 내용의 대체 법안을 제안하고, 주민 투표 실시를 목표로 총 9천만 달러를 투입해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의 시사점

최근 배달대행 플랫폼의 증가에 따라 한국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노동 3권 보장 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법적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핵심은 플랫폼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 일부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별로 근로 형태와 조건이 제각각이어서 개별 사례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 모든 양태의 플랫폼 노동을 포괄해 규율하는 방식의 접근은 한계가 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1차적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노동자 보호의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9. 7. 16.)

2019년 1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친모의 폭행과 학대 등으로 사망한 4세 여아 A양. 2017년 5월 이웃이 신고해 아동학대 정황이 처음 확인됐다.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가 1년 만에 집으로 돌아간 A양은 다시 학대에 시달렸지만 친모의 거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처럼 학대·유기·이혼·빈곤 등의 이유로 가족과 분리되는 아동은 연간 4천~5천 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고 있고, 매월 2.6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

아동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가 쌓여 있지만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보호대상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등 아동 지원업무가 여러 기관에 위탁돼 산발적으로 운영돼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8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8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아동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해 7월 출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면 보호 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총괄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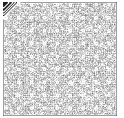
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을 위한 통합서비스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을 위한 체계적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총괄기관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지원(중앙입양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자립지원(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지원단), 아동돌봄(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실종대응(실종아동전문기관) 등의 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다. 아동정책 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획 및 통계 구축 등 정책지원 기능도 맡는다. 아동권리 협약과 관련된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도 수행한다.

2019년 7월 16일 우선 중앙입양원,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등 4개 기관이, 올해 초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단 등 4개 기관이 추가로 통합된다. 노하나 아동권리보장원 돌봄기획·홍보팀 팀장은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 패러다임을 확장했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은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서울, 대전, 부산, 제주 등을 돌며 ‘포용국가 아동정책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각 지역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가, 현장 실무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에 필요한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실종아동 찾기·예방을 위한 포스터와 동영상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손호성 기획예산팀 팀장은 “앞으로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등 아동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나 민간기관에 전문교육을 제공해 아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측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돌봄사업지원, 실종아동지원 등의 사업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아쉬워했다. 노하나 팀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질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면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 돌봄사업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실종아동 관련 업무도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종아동지원과 관련,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위탁하

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기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국가 및 지자체 복지업무처리 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비롯해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정해선 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부 부장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용자 교육 등 면에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미 운영 중인 위기의심 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함께 운영하게 되면서 아동학대 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아동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글. 박민선



지난 2016년 3월 굿네이버스 등 42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덕수궁 앞에서 아동학대 근절 퍼포먼스를 여는 모습

한국도로공사의 선투자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합니다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9-08-23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2019-10-31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NEWS

12/2 제17회 국회 시 낭송의 밤 개최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회 시 낭송의 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힘든 삶도, 추운 겨울도 모두 함께 잘 견뎌내기를 소망한다”며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숙제들은 최선을 다해 해내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겨울이 되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어느 시인은 추운 겨울을 이렇게 보내라고 말했다”면서 “이 겨울 우리 몇몇만 언 손을 마주 잡고 떨고 있는 듯해도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견디고 있다.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이기고 있다”는 도종환 시인의 시 ‘겨울나기’ 마지막 구절을 소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여러 행사 중에 ‘시 낭송의 밤’이 가장 마음 푸근한 자리”라면서 “2019년의 마지막 달을 시와 함께 시작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해처럼 기회를 주신다면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내려가겠다”면서 “세월이 어찌나 빠르게 흐르는지 살아가면 갈수록 손에 잡히는 것보다 놓아주어야 하는 것들이 많다. 한가로운 오후 마음의 여유로움보다 삶을 살아온 만큼 외로움이 몰려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다”는 용혜원 시인의 ‘어느 날 오후 풍경’을 낭독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했다.

12/4 문희상 국회의장,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이는 대륙과 해양의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한중 양국의 국익과도 부합하는 계



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순항하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잠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고비를 넘기는 데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남·북·미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중국이 가고 역할을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중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양국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2/18 문희상 국회의장, 예춘호 전 의원 서예전 개막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춘호 전 의원 서예전 개막식’에 참석해 “(예춘호 선생은) 평소 ‘바르게 사는 것이 첫째이고, 그다음은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는 용기”라고 강조하셨다. ‘유소불위(有所不爲)’라는 (서예전의) 주제가 예춘호 전 의원님의 인생과 신

념을 함축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예춘호 대선배님은 현역 정치인 시절, 집권여당의 편안한 길을 버리고 신념을 따라 바른 길,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군사 독재 시대에는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었던 민주협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재야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민주투사였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유소불위’는 ‘맹자’에 나오는 말로 ‘하지 않는 일이 있는 뒤에야 큰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옳고 그름을 따져 탐욕을 버리고 바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전시되는 작품들을 감상하면 그 안에서 예춘호 선생의 뜨거웠던 인생의 발자취를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예전 개막식에는 예춘호 전 의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원혜영·김부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무소속),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예춘호 전 의원의 아들인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예춘호 전 의원의 작품들은 18일부터 20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 전시됐다.

3년 10개월 만의 필리버스터, 여야 의원 15명 50시간 토론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12월 23일 오후 9시 49분 시작돼, 26일 0시 임시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50시간 11분 만에 자동 종료됐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지난 2016년 2월에 이어 3년 10개월 만으로, 여야 의원 15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NEWS

첫날인 12월 23일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을 시작으로 24일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토론했다. 25일에는 이정미 의원(정의당),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이주영 국회부의장, ‘한·아프리카의회외교포럼, 주한 아프리카외교단 연례 간담회’ 개최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12월 9일 국회 사랑재에서 ‘한·아프리카의회외교포럼, 주한 아프리카외교단 연례 간담회’를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최연호)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한 아프리카외교단장인 카를로스

빅토르 봉구 가봉 대사를 비롯한 아프리카 17개국 공관장과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14개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과 아프리카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프리카는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거대한 대륙”이라며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프리카는 먼 이국이나 나라 가까운 형제나라로 바뀌고 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아프리카 나라들은 힘이 될 것이며, 그들이 어려울 때 우리는 손을 내미는 친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지역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한·아프리카의회외교포럼과 아프리카새시대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3년 아프리카새시대포럼 결성을 주도한 이후 70여 차례 아침세미나를 여는 등 의원외교와 포럼운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제2회 자살예방 국제세미나’ 개최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주승용·원혜영·김용태 의원)은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주한 덴마크대사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제2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살예방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나라 정



책에 반영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고,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됐다. 2018년 일본, 덴마크가 참여한 제1회 국제세미나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 덴마크가 참여했다. 이날 제이 캐러더스 뉴욕주 정신보건국 자살예방사무소장은 '자살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의 역할 : 뉴욕주의 경험'을, 아네테 에를랑센 덴마크 자살예방연구소 부소장은 '덴마크 자살-전세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자살은 어렵고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이 저지르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다”며 “자살은 산업사회에서 경제적 풍요로움을 따라가야 하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관심으로 자살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자살예방포럼은 2018년 창립돼 현재 3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책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활동,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등을 해오고 있다.

국회 법제실-일본 중의원 법제국 첫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실은 12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제입안 업무에서의 ICT와 AI 기술의 활용'을 주제로 일본 중의원 법제국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일본 중의원 법제국은 공동세미나에서 법제입안 업무에 이용되는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법제실무 경험을 소개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법제지원 정보시스템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19일 오전 중의원 법제국 방문단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예방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7월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의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이 때 국회를 방문해주셔서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일본 중의원 법제국 간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양 기관 간 교류가 지속되기를 바라며 향후 양국 의회 간 교류도 활발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치바나 유키노부 법제국장은 “일본 중의원 법제

NEWS

국 역시 이번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국회사무처와 일본 중의원 법제국 간 교류가 지속되길 바라며 나아가 양 국민 간 교류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공동세미나는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일본 중의원 법제국이 개최하는 첫 세미나로, 공통의 법제현안을 주제로 격년제 방식으로 양 기관에서 번갈아가며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방송, 새해부터 의정종합뉴스 ‘뉴스N’ 신설

의정 전문 채널인 국회방송이 새해부터 의정종합뉴스 ‘뉴스N’을 신설해 매일 1시간씩 방송한다. 새해 1월 2일 오후 6시 첫 방송되는 ‘뉴스N’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0분으로 편성될 계획이다.

‘뉴스N’은 의정 현장 리포트와 이슈 분석, 기획취재 코너를 통한 기자들의 대담, 국회의원 인터뷰, 원로 정치인과의 대담, 전직 의원들의 찬반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뉴스N’의 앵커는 김만흠 시사평론가와 강아랑 방송인이 맡을 예정이다. ‘뉴스N’은 국회의원과 여러 정당들의 치열한 격돌과 협상이 이뤄지는 국회의 생생한 현장과 정책현안, 입법 정보 등을 보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임광기 국회방송 방송국장은 “‘뉴스N’을 통해 의정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균형감 있게 전달하겠다”며 “국내 유일의 의정공공채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시상식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12월 12일 국회도서관 중앙홀에서 ‘제2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 기반 서비스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aS-TA)를 기반으로 국회도서관의 입법·정책·학술정보 데이터 등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클라우드와 데이터가 결합된 신규 응용서비스 개발 및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10팀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국회의장상)은 문화데이터 기반 퀴즈게임플랫폼을 개발한 ‘퀴즈박물관’ 팀이 수상했고, 금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은 부모·자녀 사이 관계 개선 및 관리 서비스를 개발한 ‘CACTUS’ 팀과 공공데이터 활용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서비스를 개발한 ‘RollingPaasta’ 팀이 각각 수상했다. 또 인공지능 기반 농작물 생육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 'Agries' 팀이 금상(국회도서관장상)을 수상했다.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은 치매의 조기진단·예방을 가능하게 하는 통화 서비스를 제안한 'Silvia Health' 팀이 수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이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10년

(2019~2028년)간 8대 사회보험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에 대한 재정전망과 재정건전성 점검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는 2019년 35.5조 원에서 2028년 20.8조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사회보험 중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지만, 기금운용규모가 큰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험 전체로는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점검한 결과,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

양비는 2028년 기준 군인연금 54.6, 공무원연금 51.0, 사학연금 39.7, 국민연금 38.0의 순으로 전망되었다.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은 당해 연도 수입이 지출을 총당할 수 있는 여력을 측정하는 재정지표로서, 2028년 기준 국민연금(1.7배), 사학연금(1.0배), 고용보험(1.1배), 산재보험(1.3배)은 당해 연도 수입이 지출을 총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그 외 공무원연금(0.8배), 군인연금(0.5배), 건강보험(0.9배), 노인장기요양보험(0.7배)은 수입이 지출을 총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적립배율은 당해 연도 적립금이 지출을 총당할 수 있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국민연금은 2028년 18.2배로 타 공적연금(사학연금 3.3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전망기간 동안 적립배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8년 기준, 고용보험의 적립배율은 0.8배로 1배에 미치지 못하고, 산재보험은 4.2배로 적립배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각각 2024년 및 2022년에 적립금이 소진됨에 따라 적립배율이 측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2020년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공동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2월 1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의원) 및 국회 한반도평화번영포럼(대표 박병석 의원)과 공동으로 '2020년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NEWS



제1세션은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을 주제로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미중 전략경쟁 과정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과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해,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외교안보 및 경제 등 전면적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중경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 변화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희욱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후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제2세션은 ‘2020년 미중 무역분쟁 전망’을 주제로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가 미중 무역분쟁을 전망하며 한국의 안보·산업·통상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중 간 무역분쟁 발생의 배경과 중국의 대응 현황을 제시하고, 미중 무역분쟁의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으며,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이 좌장을 맡았다. 이후 이승주 중앙대 교수,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박지형 서울대 교수, 최필수 세종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국회미래연구원, 뉴로사이언스(Neuroscience) 국제 학술행사 공동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은 12월 13일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뉴로사이언스(Neuroscience, 신경과학)를 주제로 국제학술행사를 공동개최했다. ‘뉴로사이언스의 발전과 윤리·법적 이슈’를 주제로 한 이 행사는 한국 뇌연구원, 뇌신경윤리연구회,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주관)와 공동주최한 것이다.

축사에서 박진 원장은 최근 10년간 학술 데이터베이스(DB)에서 ‘인간(human)’이 미래 관련 주요 키워드였음을 상기하면서, 뇌과학 관련 이슈들이야말로 미래의 핵심적인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로사이언스의 발전’ 세션과 ‘법·윤리 문제’ 세션에서 각각 한국, 중국, 일본의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미래연구원 박성원 박사 주재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는 미래연구원 허종호 박사를 포함해 학계, 관계, 산업계, 언론계 등에서 참석했다.



소통과 번영의 새해를 기대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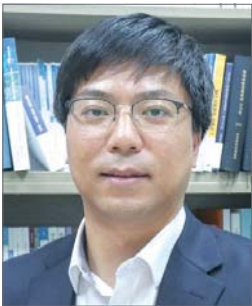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소통관’이 준공됐습니다. 국회소통관은 프레스센터와 스마트워크센터, 후생시설 등이 조성돼 국회, 행정부, 언론, 시민이 함께 지내는 공간입니다. 국회가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하는 ‘소통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도 담겨 있지요. ‘번영과 번성’의 의미를 가진다는 경자년 새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
가 소통으로 번영하는 대한민국 국회를 기대해봅니다. 🍅

글. 서기정 사진. 유윤기

국회보는 2020년 1월호부터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고, 그들의 소소한 일상과 국회에서 일하며 겪는 애환을 전하는 새 코너 ‘국회사람들’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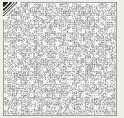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제방훈 보좌관
윤상직 의원실

특정 직업군을 조명한 드라마들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최근 국회 보좌진을 소재로 한 모 방송의 ‘보좌관’은 같은 보좌관의 입장에서 반가운 드라마였다. 국회 보좌진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보좌진이란 직업이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감사한 일임과 동시에 어안이 병병한 일이다.

내가 국회에 처음 입사했던 2008년 당시 보좌관이라는 직업은 대중들에게 매우 생소했다. 글쓰기를 좋아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기자가 되기 위해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학보사의 편집장도 했다. 2008년 국회에 공채 인턴으로 입사한 것도 정치부 기자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약간의 기대감에서였다.



비록 인턴이었지만 국회에서의 생활은 내 가슴을 뛰게 했다. 그 두근거림은 당초 내가 국회에 왔던 목적을 까맣게 잊게 했다. 공동체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했던 내 이상은 높았고, 국회는 그것을 채워주었다. 대한민국을 기획한다는 그 강렬한 자부심은 청와대 행정관 1년 반여 경력을 빼고 12년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리 국회에 눌러앉게 만들었다.

보좌진은 입법부의 핵심인력이다. 국회의 일은 의원의 활동 전 분야를 보좌하는 보좌진의 손끝을 거쳐야 하는 구조다. 보좌진은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심의, 예산결산 심사,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을 준비한다.

다양한 입법활동 가운데 2018년 7월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금도 나에게 잔잔한 울림으로 남아 있다. 당시 우리 의원실은 법사위면서 입법권이 부여된 사개특위에서 속해 있어 법무부와 검찰·경찰 인사들과 자주 접촉했는데 그중 우연히 들은 입법 미비 사례가 있었다. 현행 형소법 제196조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돼 있다. 다양한 검찰의 직책들이 ‘수사관’ 하나로 뭉뚱그려 있는 이유가 된지 따져보니 1954년 5월에 제정된 법에 수사관을 명시한 후 한 번도 개정이 안 된 것이었다. 현재 직접 수사에 참여 중인 인원이 9급까지 6천여 명인데 이들은 형사소송법상 근거조차 없었다. 이에 윤상직 의원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개선을 촉구하는 질의를 했고, 사법경찰관리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후배들을 위해 좋은 법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참 수사관들께서 진심 어린 말을 전해오셨다.

행정부에 비해 국회 보좌진은 근속이 상대적으로 짧다. 조직력을 갖춘 행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문제를 지

적하는 것은 많은 실력과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국회에는 제대로 된 교육도 교재도 거의 없다. 방패인 행정부의 방어태세가 견고한 반면, 창 격인 국회의 노하우 전수는 거의 전무했다. 이런 현실이 답답했다. 파편화된 개인의 노하우들을 모아 국회의 조직적 자산으로 엮어내고 이를 다시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진정한 삼권분립은 보좌진의 실력향상을 통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강화에서 이뤄진다고 보았다.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 펴내

답답한 놈이 우물을 판다고, 내가 직접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를 써서 지난해 9월에 출간을 했다. 애들 셋을 재우고 새벽마다 글을 쓰다 보니 꼬박 6개월이 걸렸다. 국정감사의 성공전략, 아이템 기획과 질의서 작성, 보도자료 및 언론홍보 전략 등의 노하우를 담았다. 또 ‘확 와닿는 이슈’를 잡는 7가지 전략, 반드시 해야 할 자료요구 목록 30가지 등은 유익하다는 평이 많았다. 인턴 한 분은 입사 7일째인데 책을 읽으며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인사해주셔서 참 반가웠다.

요즘은 일이 하나 더 늘었다.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의 대변인 일이다. 국회의원의 말과 글을 대신하는 것이 보좌관들의 일이다. 각각이 다 선수들이다. 그런 보좌진의 말과 글을 대신하는 일이 나에게만 과분하지만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 이름과 직책을 내걸고 댜가를 쓴다는 게 어색하지만 보람도 섬세하게 다가온다. 같은 보좌진이라도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모든 입장들을 녹여내면서 현안의 핵심을 꿰뚫고 일필휘지를 지향해야 한다.

얼마나 국회 생활을 더 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보좌관으로서 가장 나를 꽃피우고 있는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한보협 대변인의 이름으로 울림이 있는 글을 남기고 싶다. 🍵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진보를 한다는 점이다. 쉬운 예로 인간이 노루를 잡는 방식은 1천 년 전과 100년 전, 10년 전의 방식이 모두 다르다. 노루를 잡을 때 입는 옷도 다르고 잡는 도구도 다르고 잡고 나서 가져오는 방식도 다르다. 그러나 사자가 노루를 잡는 방식은 1천 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어제나 모두 동일하다.

이런 진보를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이라고 부른다. 경제성장이란 단위시간당 생산해내는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과거에는 사람 10명이 돌멩이를 들고 노루가 지칠 때까지 몰면서 5시간에 1마리쯤 잡았다면 지금은 한 사람이 총 한 정으로 시간당 서너마리를 잡는다. 사냥하는 장면의 진화는 인류의 경제성장을 가장 실감 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들

왜 사람은 이렇게 경제성장을 하는데 동물은 하지 못할까.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경제성장을 꾸준히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이 동물과 달라지기 시작한 첫 출발점은 분업이다. 예를 들어 물을 마시러 가려면 동쪽으로 사흘을 걸어야 하고 풀을 뜯으러 가려면 서쪽으로 사흘을 걸어야 하는 곳에 사슴과 노루가 한 마리씩 살고 있다면 그 사슴과 노루는 곧 죽는다. 물을 향해 가더라도 겨우 물만

먹고 풀을 뜯을 수 없어 죽게 되고 풀을 뜯으러 가더라도 겨우 풀만 뜯고 물이 부족해서 죽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너는 동쪽으로 가서 물을 2인분 떠와라. 나는 풀을 2인분 가져올 테니 나눠 먹자’는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분업은 이렇게 때로는 생명을 좌우하기도 하는 중요한 경제성장의 요인이다.

분업보다 더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이다. 문자와 말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서 ‘다음부터는 네가 동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노루를 반대편으로 몰아라’ 같은 구체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해졌고 그게 진보의 바탕이 됐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계약의 안정성이다. 분업과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다. 인간들이 모인 A집단에 비해 비슷한 인간들이 모인 B집단에서 더 훌륭한 경제적 성과를 이뤄내는 이유는 각 집단 내에 자리 잡은 계약의 안정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화약을 만들 때 초석과 유황을 3 대 1로 섞는 것보다 2.5 대 1.5의 비율로 섞을 때 더 폭발력이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위험과 피곤함을 무릅쓴 수많은 실험과 비용이 필요하다. 화약 기술자에게 기꺼이 그런 실험을 하도록 만들려면 그에게 그럴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보상의 약속을 자주 어기고 말을 바꾸도 별문제가 없는 분위기라면 아무도 밤



을 새워 실험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약속과 계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도중에 말을 바꾸지 않게 현대 사회의 경제성장을 일구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그런 점에서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된 베니스가 왜 유럽에서 제일 번성한 도시가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사업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서 한 달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가슴살 1파운드를 내놓겠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 한 달이 지났어도 돈을 갚지 못한 안토니오는 재판정에 서게 된다. 판사는 안토니오가 불쌍했고 샤일록이 미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계약서에 따라 가슴살 1파운드를 가져가되 그 과정에서 피는 단 한 방울도 가져가지 말라’는 판결을 내린다. 재판을 지켜보던 베니스의 시민들은 기쁜 마음에 환호성을 올린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 밤을 새워 매우 깊은 고민을 하는 장면이다. 생각해보자. 베니스의 시민들은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가슴살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심지어는 오히려 고리대금업을 하는 샤일록을 처벌하는 걸 바랐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판사가 그냥 ‘욕심 많은 샤일록 저 놈을 감옥에 가둬라’라는 지시를 내렸어

도 사람들은 그 결정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판사는 안토니오가 돈을 갚지 않으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계약서 문구 한 줄 때문에 밤을 새워 고민한다. 바로 이것이다.

무소불위의 판사라도 계약서의 문구 한 줄 때문에 밤을 새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베니스가 유럽 최고의 상업도시가 된 비결이다. 아무리 판사라도, 아무리 그 대상이 밋고 여론이 원하더라도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전제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사회의 시스템이 베니스를 유럽 최고의 도시로 만든 비밀이다.

규칙과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가끔은 우리나라가 500년 전의 베니스만도 못한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21세기의 우리도 많은 경우에 여론과 자의적 판단과 기분을 앞세워 규칙을 바꾸고 약속을 깨고 법을 바꾼다. 10년 전에 집을 구입할 때는 없었던 세금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은퇴 후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10년쯤 후에 50만 원으로 낮추기도 한다. 100만 원을 주고 냉장고를 사서 쓰고 있는데 3년쯤 후에 냉장고를 판 상인이 사실 그 냉장고는 150만 원이었다며 50만 원을 더 내라는 격이다. 실제로 그게 진짜 150만 원짜리 냉장고였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아무도 냉장고를 사지 못한다. 🏠

글 이진우(MBC 표준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청년복지의 현주소와 과제



정초원 운영위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국회보는 2020년 1월호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청년에게 듣는다’ 코너를 신설합니다. 일자리나 복지, 문화 등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생각을 듣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추진 방향을 생각해보 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청년복지의 실태

오늘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복합적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심각한 구직난이다. 2018년 기준 청년 고용률은 42.7%로, 10명 중 6명이 고용되지 못한 상태로 노동으로부터 멀어들이는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근로빈곤도 심각하다. 1~4인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평균임금은 2017년 기준 118만 8천 원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18).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도 68만 명에 이르며,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26.5%에 불과하다(한국노동연구원, 2019).

청년들의 주거환경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가 지출하는 평균 월세비용은 2017년 기준 49만 2천 원(국토연구원, 2017)이다. 이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소위 ‘지옥고’라고 불리는 반 지하·옥탑방·고시원을 선택한다. 그 결과, 청년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가 33.1%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이 모습은 고스란히 청년들의 금융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학진학률이 여전히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높은 대학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이미 학자금 대출의 빚을 지고 사회로 나오게 된다. 실제로,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대출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3만 6천104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한국경제, 2018. 12. 13).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는 찾기 어렵고, 주거비와 같은 생활에 필수적인 지출은 늘어나면서 빚이 더 쌓이게 된다. 그 결과, 30대 미만 청년 가구주의 부채는 2천397만 원에 달하고,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청년들도 급격히 늘어나 20대 청년들의 개인파산 신청 증감률은 29.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세계일보, 2019. 7. 27).

청년에게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

위와 같은 청년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중앙과 지역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청년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의 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해 청년정책의 문제점과 보완을 위해 활동했다. 이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의 주된 문제였던 취업률과 같은 숫자 위주의 성과 지표 측정 방식이 고용 지속성과 근로 형태 등 질적인 지표도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주거 및 금융 등 사회 안전망을 논의하는 여러 자리에 참여해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및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청년의 입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활동했다. 특히,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는 빈곤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후 기획재정부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및 햇살론 유스의 도입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청년을 위한 근거리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아직 정책 체감도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국가인권위원회, 2019)을 바꾸기 위해 청년을 직접 만나 정책을 홍보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대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청년정책 설명회 및 1:1 정책 상담을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청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의 청년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이런 여러 활동을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안전망으로서의 정책을 체감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청년의 삶과 정책 간 괴리감을 좁혀야 한다. 일자리 알선 서비스의 성과 지표가 취업률이라는 숫자 위주였던 것은 일자리의 질이나 고용형태가 청년들에게 갖는 의미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많은 청년들이 공공서비스를 거쳐갔지만 그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다. 기계적인 정책의 설계가 아니라 일자리, 주거, 부채 문제를 비롯해 청년들의 열악한 현실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청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그래핀이 다시 불붙인 초전도의 꿈

얼마 전에 물리학자 몇 명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에 가장 근접했던 한국인은 김필립 미국 하버드대 교수였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필립 교수는 탄소 원자가 벌집 같은 육각형 모양으로 서로 연결되어 2차원 평면 구조를 이루고 있는 물질인 그래핀(graphene)의 권위자다. 이 그래핀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두 과학자가 201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당시에 김필립 교수가 상당히 근접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다.

그리고 그래핀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어디서 얼핏 들었던 게 정말인지 궁금해 물었다.

“그런데 노벨상 이후로 그래핀은 좀 주춤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자 최근에 그래핀이 다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핀을 초전도 상태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부터 물리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이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뒤에 궁금해서 관련 내용을 좀 찾아보았다. 2018년 미국 MIT의 파블로 자틸로헤레로 교수 연구팀은 그래핀 두 장을 쌓아 초전도 상태로 만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대로 겹쳐서 쌓는 건 아니고 약 1.1도 비틀어서 두 그래핀의 격자 구조가 살짝 엇갈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 1.1도를 ‘마법의 각

도(Magic Angle)’라고 부른다.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

초전도란 쉽게 표현해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다. 전기 저항이 없으므로 전류를 흘려주면 손실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른다. 초전도가 아주 희귀한 성질은 아니다. 이미 여러 가지 초전도체가 발견되었고, 우리 생활 곳곳에도 초전도체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문제는 초전도 현상이 평범한 환경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초전도 현상은 모두 아주 낮은 온도에서만 일어난다. 최초로 초전도 현상을 발견한 네덜란드 물리학자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는 1910년대에 4.2K(섭씨 영하 268.95도)에서 수은의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사실을 관찰해 기록했다. 초전도 현상이 발견된 뒤에도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건 어려웠다. 50년 가까이 지난 1950년대에 이르러서야 초전도 현상의 일부를 설명하는 이론이 나왔다.

오너스의 발견 이후 여러 과학자가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보통 액체 질소의 끓는점인 77K(섭씨 영하 196.15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을 고온 초전도체라고 한다. 고온 초전도체는 끓는점이 3~4K인 액체 헬륨 대신 지



구 대기에 풍부하고 값싼 질소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고온 초전도체 중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세라믹을 기반으로 만든 물질로, 약 135K(섭씨 영하 약 138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우주에서나 겪을 수 있을 법한 극심한 추위를 ‘고온’이라고 부른다는 게 적응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를 끌어올리는 게 어렵다는 뜻이다. 게다가 고온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는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최근에 발견한 그래핀의 초전도 현상이 고온 환경에서 일어난 건 아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 고온 초전도체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핀을 이용한 연구가 고온 초전도체의 원리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온에 가까운 온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의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상온 초전도체는 가능할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초전도 기술을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건 병원에서 쓰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다. MRI는 우리 몸 안을 관찰하기 위해 강력한 자기장을 일으킨다. 이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초전도체로 만든 코일을 감아서 만든 전자석을 이용한다. 히스 입자를 발견하는 데 쓰인 세른(CERN: 유럽입자물리연구소) 대형강입자가속기(LHC)도 양성자를 유도하기 위해 초전도 자석을 쓴다. 원자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핵융합로 역시 수억 도까지 올라가는 플라스마가 벽에 닿지 않도록 가두기 위해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다.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까지 냉각하는 과정은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냉각용으로 주로 쓰이는 헬륨은 점점 고갈되고 있어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



다. 앞으로 헬륨이 다 떨어진다면, MRI를 마음대로 쓰지 못해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초전도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꿈은 상온 초전도체다.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만들 수만 있다면, 거추장스러운 냉각기가 필요 없어진다. 지금도 액체 질소를 이용해 초전도 케이블을 만들고는 있지만, 상온 초전도체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손쉽게 전력 기반 시설을 초전도체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기 저항이 0이므로 전력을 보내는 과정에서 손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아무 손실 없이 전기가 남아돌 때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만 뽑아 써도 된다. MRI도 지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쓸 수 있고, 입자가속기나 핵융합로 연구도 더 수월해진다.

10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아바타’에서 악당 무리가 노리는 희귀 금속이 설정상 상온 초전도체다. 이 금속을 얻기 위해 그토록 혈안이 되었던 것도 이해가 된다. 지금 우리에게 상온 초전도체는 아직 현실보다 꿈에 훨씬 더 가깝다. 그래핀이 이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까? 🍵

글: 고희관(과학칼럼니스트)

절제와 관능 사이, 조선시대 미인도



신윤복, '미인도' 18세기 말~19세기 초, 114×45cm, 간송미술관 소장

2008년 전후 몇 년 동안 봄가을이 되면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 앞에 사람들이 수백 미터에 걸쳐 길게 줄지어 서곤 했다. 간송미술관 봄가을 특별전을 보기 위해서였다. 간송미술관에 수많은 명품이 가득하지만 2008년 무렵 당시 사람들을 가장 매료시킨 작품은 혜원 신윤복(蕙園 申潤福, 1758~?)의 '미인도'(18세기 말~19세기 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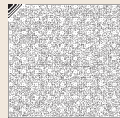
그 무렵, 그러니까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을 모델로 한 팩션 소설이 인기를 끌었다. '바람의 화원'이나 '색, 샤라쿠(色, 寫樂)' 같은 소설이었다. '바람의 화원'은 같은 이름의 TV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혜원을 소재로 한 영화 '미인도'도 개봉된 바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미인도' 열풍에 한몫한 것이다.

혜원의 '미인도'는 실제로 매력적이다. 보는 사람을 늘 설레게 한다. 아담한 얼굴에 작은 아래턱, 좁고 긴 코에 다 소꿉한 콧날, 약간 통통한 뺨과 작은 입, 흐리고 가느다란 실눈썹에 쌍꺼풀 없는 가는 눈, 가녀린 어깨선과 풍만하게 부풀어 오른 치마, 치마 밑으로 살짝 내민 왼쪽 버선발...

신윤복은 화면에 이렇게 적었다.

‘盤礴胸中萬化春 筆端能與物傳神(반박흉중만화춘 필단 능여물전신)’. 그 뜻을 풀어보면 이렇다. ‘가슴속 깊은 곳에 서려 있는 춘정, 붓끝으로 능히 그 마음 전하도다.’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뻗 애처로운 눈빛. 무언가 아련함이 진하게 묻어나는 여인의 얼굴이다. 춘정(春情)이



가득하다고 할까. 보는 이를 향해 손짓하는 듯하다. 그런데 그 춘정의 표현은 살짝 관능적이면서도 매우 절제되어 있다.

이 여인의 눈은 작고 쌍꺼풀이 없다. 요즘엔 쌍꺼풀이 있는 큰 눈을 좋아하지만 조선시대엔 쌍꺼풀 없는 작은 눈을 미인의 눈으로 여겼다. 머리엔 큼지막하게 머리카락을 틀어 올렸다. 이런 머리를 트레머리라고 한다. 일종의 장식용 머리다. 조선 후기엔 부녀자들 사이에서 이 트레머리가 크게 유행했는데 그 사치가 너무 심해 영조는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조선 후기 여성들의 패션문화를 알 수 있다. 그림 속 주인공은 다소곳이 서서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인 채 옷고름에 달아놓은 삼작노리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노리개는 한복 저고리의 고름이나 치마의 허리에 다는 장신구를 말한다. 장신구를 다는 술이 하나이면 단작노리개, 술이 세 개이면 삼작노리개라고 한다.

조선시대 미인상 엿볼 수 있어

치마는 배추 포기처럼 부풀어 올라 있는데 조선 후기 미인도에는 이런 치마를 입은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그림 속 여성은 기생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우아함과 품격은 대단하다.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미인으로 생각했는지, 당시 여성들의 의복과 장식물은 어떠한지 등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엔 기생이 여성의 패션을 리드하는 계층이었고 따라서 이 그림에 당시 여성의 패션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다.

한국의 미인도는 고구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6



작자 미상, '미인도',
19세기, 117×49cm,
녹우당 소장

세기 전후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여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나 조선 중기까지는 여인을 그린 그림은 매우 드물다. 미인도라고 부를만한 작품은 조선 후기 들어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고, 여성을 이렇게 과감하게 화면 한복판으로 이끌어내 당당하게 배치한 것은 신윤복이 처음이었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이고 과감한 실험이 아닐 수 없다.

후대의 미인도들은 모두 이와 흡사한 모습이다. 신윤



채용신 '팔도미인도', 20세기 초, 8폭 병풍, 개인 소장

북의 그림이 후대 미인도의 전범이 된 것이다. 전남 해남군의 해남 윤씨 종가인 녹우당에 있는 '미인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있는 '미인도', 동아대박물관에 있는 '미인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인도' 등이 모두 신윤복의 '미인도'와 스타일이나 분위기가 흡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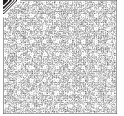
이 작품들에서 알 수 있듯 조선시대의 미인도는 깨끗하면서도 그윽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맑고 투명하다. 감춤과 절제의 미학이다. 조선시대의 검박한 유교 문화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20세기 초 '팔도미인도'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삼아 그렸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작품이다. 조선시대 팔도 미인의 구체적인 얼굴형과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8폭짜리 '팔도미인도' 병풍은 석지 채용신(石芝 蔡龍臣, 1850~1941)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여기엔 서울, 평양, 경남 진주, 전남 장성, 강원 강릉, 충북 청주, 전북 고창 등 8개 지역(한 곳은 미상)의 미인과 기생 등 8명의 전신상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평양 기생 계월향(桂月香), 장성 관기 지선(芝仙), 진주 관기 산홍(山紅), 강릉 미인 일선(一善)처럼 각각의 화폭엔 모델의 실명이 적혀 있다. 모두 실존했던 인물이다.

한 예로, 그림 속의 진주 미인(그림 위에서 왼쪽 세번째)은 이마가 낮고 가로로 넓으며 눈썹이 높게 붙어 눈 두덩이 넓고, 눈 사이도 넓은 편이다. 이 진주 미인은 중안(눈썹에서 코끝 사이)이 길어 기품 있는 인상을 준다. 또 턱 부분이 작고 인중(코와 윗입술 사이에 오목하게 골이 진 부분)이 짧아서 젊은 인상을 주는 등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아름다운 여인이 아닐 수 없다. 시대가 20세기로 내려오다 보니 지금의 미인 분위기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미인도가 그리 많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누가 그렸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만한 작품은 더욱 드물다. 하지만 남아 있는 작품을 보면 조선시대의 미인상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그림 속 여인들은 대부분 반듯하고 깨끗한 모습이다. 화려한 치장보다는 내면의 성숙에 더 신경을 썼다. 바로 담백한 절제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미인도는 그래서 진정으로 조선적이다. 🍵

글·사진. 이광표(서원대 문화유산학 교수)



공정한 국회뉴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www.naon.go.kr에서 생생한 국회 소식을 만나보세요.



강원 삼척시 비치조각공원으로 가는 길에 본 풍경

신라 장군 이사부의 역사부터 2100년 열릴 타임캡슐의 희망까지

강원 삼척시 삼척해수욕장에서 이사부광장까지 4.7km ‘이사부길 A코스’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삼척해수욕장에서 출발해 교동 바닷가 길을 지나 정하동 이사부광장에서 끝나는 4.7km ‘이사부길 A코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신라시대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지금의 울릉도와 독도)을 정벌하기 위해 출항한 곳이 바로 삼척의 바다였다. 지증왕 13년에 신라 장군 이사부에 의해 섬나라 우산국이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 삼척의 바다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우산국 이야기

‘우산과 무릉 2섬이 현의 정동 해중에 있다. (중략) 신라 때에 우산국 또는 울릉도라고 하였는데...’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153권 지리지 강원도 삼척 도호부 울진현에 대한 기록에 언급된 내용이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우산국이었으며 지금의 독도와 울릉도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신라시대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했다. 우산국 사람들이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신라에 복종하지 않자 이사부 장군이 지락을 냈다. 나무로 사나운 짐승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척의 군함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 앞바다에 이르러 “항복하지 않으면 사나운 짐승을 풀어 너희를 잡아먹게 하겠

다”고 했더니 우산국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항복했다고 한다.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으로 출정한 곳이 정라항(지금의 삼척항)이다. 우산국은 천혜의 요새였다.

1년 전인 511년에 1차 정벌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1차 정벌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사부 장군이 준비한 것 중 하나가 나무로 만든 사나운 짐승이었던 것이다.

신라 장군 이사부의 역사가 남아 있는 삼척의 바다, 삼척해수욕장 남쪽 끝에서 시작해서 이사부광장(운동장)에서 끝나는 ‘이사부길 A코스’, 그 길에 ‘이사부’라는 이름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은 없을 것이다.

이사부길 A코스가 시작되는 삼척해수욕장을 가기 위해 삼척종합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했는데 버스가 드물었다. 가장 이른 버스가 1시간 후에 출발한다고 해서 택시를 탔다.



삼척해수욕장



삼척의 겨울 바다, 그 풍경에 휩싸이다

삼척해수욕장 백사장에 섰다. 바람이 거세게 분다. 바람은 바다 멀리서부터 파도를 일으켜 세우고, 일렬로 늘어선 파도가 일렁이며 겹겹이 밀려온다. 파도는 백사장에서 부서져 포말로 날린다. 파도를 잠재운 해변 백사장 위로 기세등등한 바람이 육지로 진격한다. 겨울 바다다.

걸어야 할 길도 잠시 잊은 채 삼척해수욕장 백사장을 끝에서 끝까지 걸어갔다 걸어왔다. 겨울 바다 앞에서 겨울을 만끽한다.

해수욕장 남쪽 끝에서 이사부길 A코스가 시작되는 곳을 찾았다. 백사장을 뒤로하고 길을 따라 걷는다.

먼바다는 길은 파란색이다. 그곳부터 시작된 파도가 해안에 가까워지면서 높이 일어선다. 푸른색 물기둥이 일렬로 일어서서 해안으로 밀려든다. 드라마에서 본, 일렬로 돌진하는 개마무사 기병대가 떠올랐다.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 대신 부서지는 파

도 소리가 공중을 울린다. 우산국으로 출정하는, 이사부 장군이 이끄는 군대의 함성이 저랬을 것이다. 그 기세 같은 파도는 한시도 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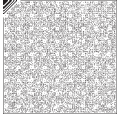
길은 작은후진해변으로 이어진다. 도로 건너편에 보이는 작은 건물은 ‘후진마을 해신당’이었다. 후진마을은 나루가 있는 작은 마을이다. 마을 이름인 ‘후진(後津)’의 원래 이름은 ‘뒷나루’다. 동헌이 있던 시내에서 볼 때 뒤쪽에 자리한 포구였기 때문에 예로부터 ‘뒷나루’라고 불렀다. 한자로 옮기면서 ‘후진(後津)’이 된 것이다. 후진마을은 큰 후진마을과 작은 후진마을로 나뉜다. 해신당은 원래 작은 후진마을 동쪽 바닷가 언덕에 돌로 만든 ‘ㄷ’자 모양의 제단이었다고 한다.

작은후진해변을 지나 후진항에 도착했다. 뒤돌아본 풍경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앞을 보고 걷는 길, 눈앞에 보이는 게 그곳 풍경의 전부인 줄 알겠지만, 실은 풍경이 그곳에 있는 사람을 사방에서 감싸고



갯바위와 정자가 어울린 바닷가 풍경





바닷가 기암괴석



소망의 탑

있는 것이다. 뒤돌아본 풍경이 낯설게 아름답다. 보지 못한 풍경이 계속 우리를 뒤따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삼척 후진항을 지나 이사부광장에 도착하다

후진항에 서서 따라온 풍경을 돌아본다. 여전히 바람은 쉬지 않고 바다를 자꾸 땅으로 밀어붙인다. 맑고 푸른 바닷물이 바닷가 갯바위에서 하얗게 부서진다. 파도에 덮였다가 제 모습을 드러내는 많은 갯바위 하나하나에 눈길을 준다. 그중 하나에 시선이 오래 머문다. ‘오래 보면 아름답다’는 누군가의 글처럼 오래 머문 눈길이 찾아낸 건 두꺼비를 닮은 바위였다. 해변으로 막 뛰어오를 것 같은 바위에 두꺼비 바위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두꺼비 바위를 지나는 파도의 결이 비단 같다.

길은 비치조각공원으로 이어진다. 조각공원 한쪽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 걸어온 풍경을 바라보았다. 바다 바로 옆 길에서 보던 거센 파도, 거친 바람, 포말로 부서져 공중에서 흩날리던 풍경도 순하게만 보인다.

비치조각공원을 뒤로하고 걷는 길에 뜻밖의 바다 풍경을 만났다. 광진항이었다. 그렇게 거세게 몰아치던 바람과 파도가 광진항 작은 해변에서는 잔잔하다. 잔잔한

바다는 푸르게 빛난다. 바닥까지 다 보이는 맑은 바다는 물결마다 햇빛을 반사해 반짝인다. 그런 풍경을 아무 생각 없이 굽어보고 있었다. 애써 보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을 소소한 풍경 하나가 돌아서서 걷는 길에 자꾸만 마음에 남는다.

그렇게 삼척시 교동 소망의 탑(소망의 종)에 도착했다. 10m 높이의 탑은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비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바깥벽에 3만 3천 명 참여자의 뜻을 간직하기 위해 탑 내벽에 인명판을 만들었다.

소망의 문은 태양이 원형으로 들어와 시선과 마주할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문이라는 안내문구가 보인다. 소망의 문에서 동해의 일출을 바라보며 종(소망의 종)을 세 번 치고 소원을 빌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새겨졌다.

‘소망의 종’ 아래에는 지난 2001년 1월 1일 타임캡슐을 묻었다는 곳이 보인다. 2100년에 열리게 될 타임캡슐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미래가 희망이 되는 날을 위해, 후대의 손으로 열게 한 봉인된 희망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사이 어느새 도착지점인 이사부광장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횡단보도 풍경과 말의 운명



퇴근 후, 공원 산책에 나섰다.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서인지 ‘옐로 카펫’이 눈에 들어온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놓은 안전 공간 표시다. 처음에 봤을 때는 저게 뭐지 했는데, 이제는 눈에 익어 그것이 무슨 표시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름은 어색하다. ‘카펫’이라는 느낌도 들지 않고, ‘카펫’의 용도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보행신호에 불이 들어오자 방금 전까지 기세 좋게 달리던 차들이 횡단보도 앞에 일제히 멈춰 선다. 차들 속에서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차에 눈길이 간다. 하이브리드 차다. 그런데 ‘하이브리드’라니 우습다. ‘hybrid’는 ‘잡종’ 또는 ‘혼혈’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차들은 어떤 연료를 쓰느냐에 따라 휘발유차, 경유차, 전기차, 수소차라고 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라니 절로 쓴웃음을 짓게 된다.

퇴근 무렵 버스의 뒤를 눈으로 쫓노라니 갑자기 상념 하나가 따라온다. 흑갈색 아스팔트는 예전 모습 그대로인데 무심한 세월의 흐름을 견디지 못해 ‘토큰’도 ‘회수권’도 ‘뽕떡모자’를 눌러쓴 ‘안내양’도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는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는 시대니 당연지사다. 그런데 도대체 왜 카드를 단말기에 ‘대는’ 것도

아니고 ‘찍는’ 것도 아니고 ‘태그’하라고 안내하는 걸까?

탄생과 소멸 겪는 ‘말’의 운명

본디 말은 탄생과 소멸이라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거스를 수 없다. 1999년 10월 ‘토큰’은 우리 곁을 떠났고, 2015년 3월 ‘옐로 카펫’은 우리 곁으로 찾아왔다. 그러나 머지않은 어느 날에 ‘옐로 카펫’도 ‘하이브리드’도 ‘태그’도 우리 곁을 떠날 것이다. 기본적으로 환경이 변하면 말도 변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역사의 뒷안길로 자취를 감추는 말들도 적지 않다. 물론 소멸이 모든 말의 운명은 아니다. 시대를 초월해 우리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말들도 부지기수다. 먼저 만들어진 말이 나중에 만들어진 말에 밀려 사라지기도 하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말이 먼저 만들어진 말에 의해 밀려나기도 한다.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춘다. 초록불이 빨간불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호등 불빛의 이름이 참 묘하다. 빨간불과 노란불 밑에 있는 불을 가리켜 초록불이라는 사람도 있고 파란불이라는 사람도 있다. 초록불은 빨간불이나 노란불과 달리 고유어가 아니고, 파란불은 초록불이 아니라 청색불의 한자어이니 난감하다. 이런 이유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초란불’이라는 말을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다.

우리는 ‘파란 하늘, 파란 들판’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만 정작 우리 주위에서 ‘파란 들판’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파란 하늘, 초란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 만약 지금 당장 ‘초랑다’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푸르다’라도 쓸 일이다. ‘푸른 하늘, 푸른 들판’, ‘푸른불’ 하는 식이다. 언제쯤 ‘초랑다’가 우리 곁으로 올지 모르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더 기다려야 할 모양이다. 🌻

글. 김형주(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사무국장)



512.3조 원 예산안 의결·한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

2019. 12. 1. ~ 12. 30.

- 2 • 자유한국당 신임 사무총장에 박완수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에 송언석 의원 임명돼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 종료하고 당무 복귀
- 3 •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여야 패스트트랙 대치
•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 78일 만에 서울구치소 재수감
• 대법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취소...석방
- 4 • 자유한국당 3선 김영우 의원 불출마 선언
• 여야 '4+1 협상' 돌입...패스트트랙 대안 마련 착수
• 한중, 서울서 외교장관회담...“한중관계 완전한 정상화 공감”
- 9 •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선 심재철 의원, 정책위의장에 김재원 의원 선출
- 10 • 국회 본회의 개의...민식이법·파병동의안 등 16건 처리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국회 로텐더홀서 무기한 농성
• 국회, 512.3조 원 예산안 의결...자유한국당 뺀 '4+1' 수정안 처리
- 11 • 미군기지 4곳 반환완료...정부, 1천100억 원 추정 정화비용 우선부담
- 12 • 세월호특별수사단, 감사원 압수수색...부실구조 자료확보
- 13 • 보건복지부,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 공개대상 340개 →564개로 확대
• 영국 조기총선거 보수당 과반... 1월 말 브렉시트 청신호
- 14 • 상주-영천고속도로서 '블랙 아이스' 사고...7명 사망·32명 부상
• 미중 '관세·농산물' 무역합의...트럼프 '2단계 협상' 예고
- 16 •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수출규제 갈등해법 모색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 기간 북한에 회동 제안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검찰 출석
• 국토교통부, 서울 18개 구, 과천 등 수도권으로 분양가상한제 확대키로
- 17 • 경찰,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검사·형사 정식 입건
• 한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 위한 5차 회의 시작
- 18 • 문화상 국회의장, 강제징용 해법 '1+1+α' 법안 발의
• '주한미군 현수준' 미 국방수권법,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트럼프 미 대통령 서명 예정
• 오픈뱅킹 전면 시행...핀테크 기업도 합류
•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수용·석패율제 도입
- 19 • 문재인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수영선수 출신의 최윤희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임명
•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안 하원 가결
• 미 비건 방중...중국과 대북 문제 해법 논의
- 20 •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 21 • 이세돌 9단, 고향 신안서 벌인 시와 최종국 불계패
- 23 • 문재인 대통령,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의결
• 여야 대치 속 본회의 개의...예산부수법안·패스트트랙법 상정
• 자유한국당,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돌입
- 24 • 문재인 대통령, 중국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 원자력안전위원회,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의 영구 정지 확정
- 26 • 더불어민주당, 발레리나 꿈꿨던 척수장애인 최혜영씨를 총선 영입 1호로 발표
- 27 • 국회, 본회의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 의결

정리. 김현아

2020년식 정치



이춘규
홍보기획관·편집인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새해 첫날 보신각 종 타 종식에 참석하거나 산이나 동해안 등지에서 해맞이를 하며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수년간 경기가 팍팍했다고 아우성이었는데 바닥론이 나오며 기대는 줄입니다. 경기전망은 L자형, U자형으로 갈리지만 긴 터널의 끝은 보인다니 다행입니다.

여의도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새로운 기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소통을 강화한 협치로 희망을 주는 ‘2020년식 정치’를 시작하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2010년대식 정치와 이별하게 되면 좋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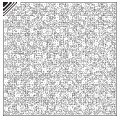
최근 전라북도 부안과 군산 사이의 새만금 간척지와 간척 뒤 육지와 연결된 ‘신들의 섬’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가봤습니다. 그 끝자락에 있는 장자도에서 식사하고, 관광객들을 둘러보면서 사회일각의 활기를 확인했습니다. 넘쳐나는 사람들, 오토캠핑, 짙라인 타기 등의 풍경은 상전벽해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찾은 이들의 다양한 말투에서 전국각지 관광객들임을 알 수 있었고, 여행의 일상화를 확인했죠. 그런데 새만금은 개발과 보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진행형입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준비 중인 한편에선 내수면 수질 오염 해결을 위한 바닷물 통수(通水)가 논의됩니다. 총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조짐입니다.

장자도와 주변 지역 방문에서는 민초들의 총선거 열기가 이미 후끈 달아올랐음을 확인했습니다. 국회에 있다는 이유로 지인과 촌로 10여 명으로부터 중앙 정치에 대한 질문을 적지 않게 받아 조심스럽게 답하고는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온 제 입에서 정치경제에 대한 희망의 단서라도 찾고자 애쓰는 듯했습니다.

희망이 갖는 힘은 셉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부모, 아내, 형제 등을 잃고 살아남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저서에서 “인간의 개인적 비극은 승리로 바뀌놓을 수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했을 때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잊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탄핵정국 후유증으로 기나긴 진영대결이 이어지고 있지요. 구태 정치는 절망을 늘렸습니다. 올해 총선거를 통해 형성되는 정치질서가 희망의 신호탄이 되길 바랍니다. 정치권은 국민 열망에 답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경사스럽고 자축할 일이 많은 경자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



1월 국회문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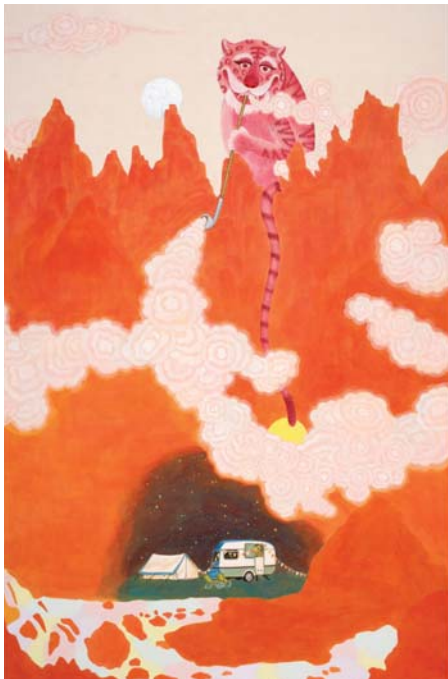
 대한민국 국회



국회문화극장

영화 〈감쪽같은 그녀〉

- 일 시 : 2020. 1. 16(목), 19: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감 독 : 허인무 / 전체 관람가 / 104분
- 출 연 : 나문희(말순), 김수안(공주) 등
- 예 약 : 국회문화행사홈페이지(<http://culture.assembly.go.kr>)를 통해 1월 6일(월)부터 예약 가능 (1인 최대 2매까지 예약 가능)
- 문 의 :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02-788-3111~2



국회아트갤러리 작품전

〈길몽산수〉

- 기 간 : 2020. 1. 2(목) ~ 1. 31(금)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 전 시 : 박소은 <길몽산수> 등 회화 11점
- 문 의 :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02-788-2296

